

30 蔚山工業센터—建設을 爲한 技術評價報告書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기술평가보고서

1963년 / 울산개발계획본부 기술용역단 / 548면 / 10.10-19 울51을 1963

이 보고서는 1963년 2월에 울산개발계획본부(蔚山開發計劃本部)와 계약한 미국의 DAY AND ZIMMERMANN 사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총 548면이다. 울산개발의 기공식이 1962년 2월 3일이었으니 거의 1년 후의 일이다.



울산개발은 당초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두 달 후인 1962년 2월 3일에 이른바 보완계획이라 하여 추가되었는데 그후 1차 경제개발계획의 주도사업이 되었다. 울산개발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추가된 경위는 이렇다. 5·16 직후 혁명정부는 당시의 기업가 전원을 부정축재자란 명목으로 구금했다. 당시 오늘의 경제인협회 회장은 삼성의 이병철(李秉喆)이었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고 구금 중인데 경제개발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병철은 당시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朴正熙)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경제개발을 한다면서 정작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할 우리들의 손발을 묶어놓으면 경제개발은 누가 하겠소” 하면서 5·16 이전에 삼성을 비롯한 경제인이 모여 울산에 삼성은 비료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그밖의 두세 개 회사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혁명정부는 울산개발을 추가하게 된다. 이때 이미 울산에는 일제 말기에 일본이 원산에

있던 정유공장을 옮겨놓은 터였다.

울산개발이 추가되자 정부는 1962년 5월에 울산개발계획본부 설치법안을 최고회의(국회기능 대신)에서 통과시켰고, 이어 6월에는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건설부 산하에 울산특별건설국을 설치하고 국장에 현역 공병준장인 황인권(黃寅權)을 임명했다.

울산공업지구의 개발은 제철공장과 비료공장 및 정유공장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이들 공장의 지원시설로서 화력발전소와 항만건설 및 공업용수 개발과 이것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주된 내용이었다. 항만은 5만 톤 선박의 접안시설이 주된 목표였고, 공업용수는 1일 12만 톤 생산이 목표였다. 도시계획은 당시 일본이 건설한 四日市(요카이치) 중화학공업단지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울산도시계획은 일본의 松井達天(마츠이 다쓰오) 와세다대학 교수도 관여했으나 그 보고서는 실전(失傳)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업용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공업단지 건설계획에 대한 평가방법을 가르쳐 준 좋은 가이드북이었다고 할 수 있다.